

2008년 07월 03일 (목) 16:29 [연합뉴스](#)

## 광주시 문예진흥기금 조성액 전국 최하위권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액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문화예술단체 지원금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문화수도 광주'의 명성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3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2007년 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 심의자료 가운데 '시도별 문화예술진흥기금 현황(2007년 7월 20일 기준)'에 따르면 광주시의 기금조성액은 총 47억원으로 전국 12위에 머물렀다.

문화예술단체 지원금도 4억4천만원에 불과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문(민주.남구1) 의원은 이날 심의에서 "문화예술진흥은 하드웨어 부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소프트웨어 부문이 더욱 중요한데 현재의 기금 규모로는 창의적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이 어렵다"며 "소프트웨어 부문의 진흥 없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나 '문화수도'의 길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매년 30억-50억원씩 5년 동안 시 출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예산으로 일시에 거액의 출연금을 마련할 수 없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2004년부터 지원해 오던 법인운영비 3억7천만원 외에 올해부터 자체 사업비 2억3천500만원과 시 위탁사업비 8억9천6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업체 등의 후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하지 못해 기금조성액이 적은 편"이라며 "5년 동안 계획대로 기금확충이 이뤄지면 시의 전체적인 기금총액 규모는 전국 상위권에 올라설 것"이라고 말했다.

kjsun@yna.co.kr

(끝)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